

대한민국 하늘에서, 세계의 하늘로! 그 중심에 KAI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에서 시작한 KAI의 도전,
이제는 세계로, 미래로!
우리는 더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K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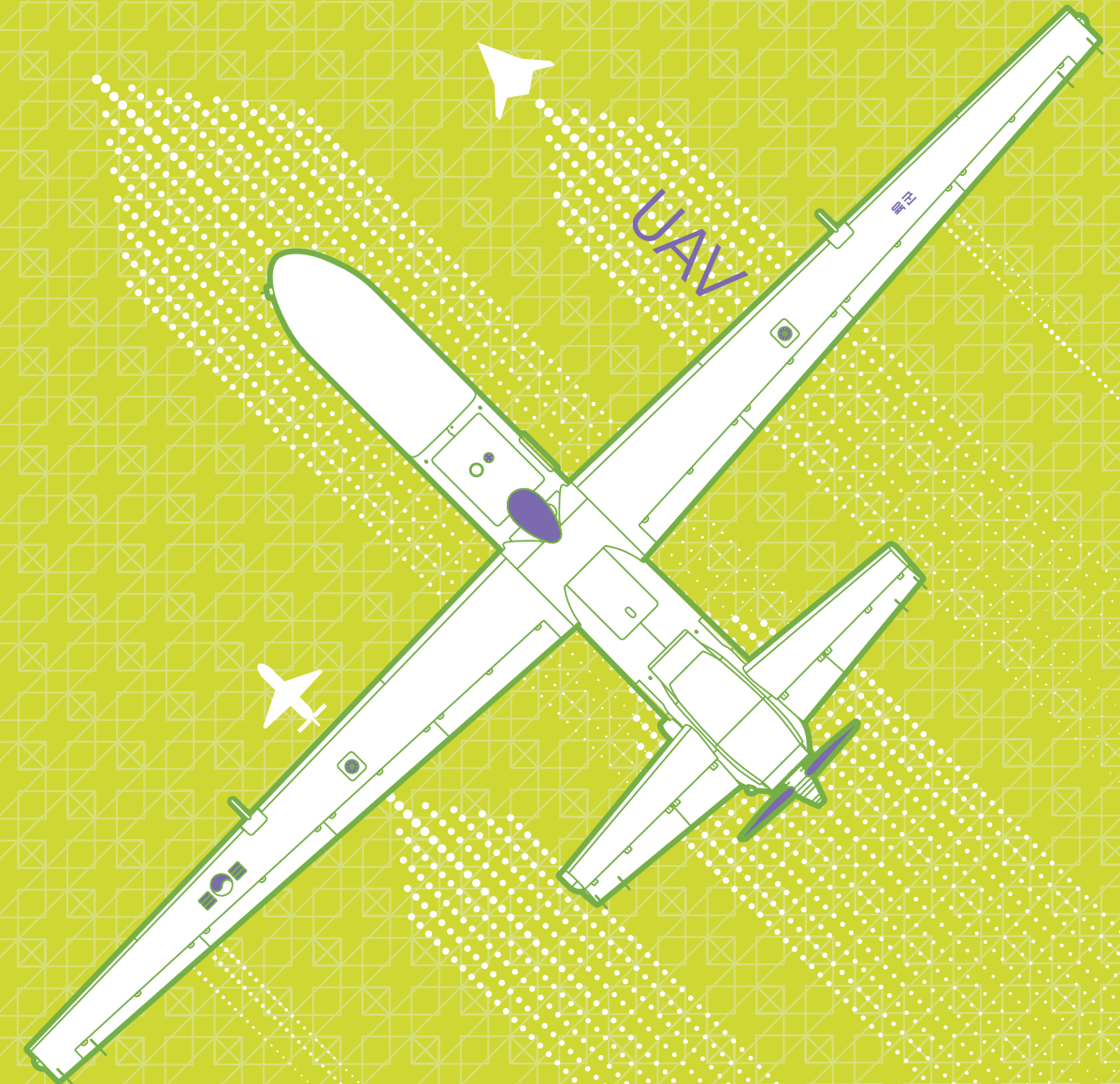
2018 May
Vol. 221

Fly Together

서프라이즈 이슈
우리 군의 미래 핵심전력,
KAI의 무인기가 떠오른다

MAIN THEME
고객의 요청에
신속, 정확하게 피드백하라

kaiwebzine.com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
에서 KAI사보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KAI magazine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2018 MAY | Vol. 221

CONTENTS

www.koreaaero.com

스페셜 테마

- 04 MAIN THEME_지속가능경영 가치체계
행동원칙 실천가이드_신뢰와 존중 편②
고객의 요청에 신속·정확하게
피드백 하라

서프라이즈 KAI

- 08 KAI 챌린지
'똑똑한 근무' 정착시켜 워라밸에 눈뜨다
10 서프라이즈 이슈
우리 군의 미래 핵심전력,
KAI의 무인기가 떠오른다
16 KAI 인문학
북유럽 신화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인문학
18 What's new
Keyword로 보는 최신 항공우주 뉴스

인사이드 KAI

- 20 KAI 현장포커스
조직 활성화를 위한 팀빌딩 현장 속으로
26 KAI People
기체생산1팀2직 윤종복 전문기술원
헬기비행제어팀 양창덕 선임연구원
센서무장팀 김명수 선임연구원
28 패밀리가 간다
자재기획팀 이상배 과장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한 힐튼 부산에서
특별한 호캉스
32 KAI 이심전심
소형헬기세부계통팀 백태준 연구원과
헬기추진계통팀 윤만근 연구원의
파스타 만들기
36 나의 여행이야기
지속경영팀 박희상 과장의
30일간 몽골 일주
42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내 인생 베스트 명장면
44 KAI toon
슬기로운 직장생활

위드 KAI

- 46 KAI 북클럽
치공구직 최승민 전문이
총무팀 전종필 차장에게
47 뉴스 브리핑
50 독자세상
51 독자이벤트

발행일 2018년 5월 8일(통권 221호·5월호·비매품)

발행인 김조원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지속경영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담당자 조연진 과장 055)851-6962

제작대행 군디자인연구소 051)796-660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 00004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10



20



28



32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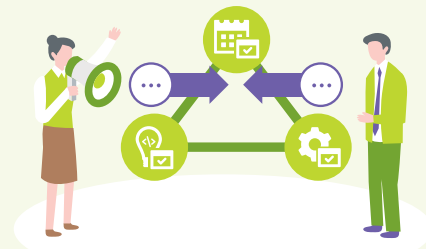
46

고객의 요청에 신속·정확하게 피드백 하라

지속가능 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객만족, 이를 높이기 위해선 고객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고객평가에 대한 측정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대응방식 역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부분이 많아 기업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객 요청에 신속·정확하게 피드백하기 위한 KAI인의 행동지침



개인 실천지침



고객과의 교류를 통한 의견 청취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지속적인 교류를 수행한다.



즉각적인 조치와 신속 피드백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즉시, 내부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조치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피드백한다.



고객 의견 기록 및 공유

고객과의 회의 및 상담 내용은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유관부서 담당자와 신속하게 공유한다.

리더 실천지침



고객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해 나아간다.



주기적인 고객의 소리 청취 및 피드백

고객 요구사항 해결은 담당자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책임을 함께 한다.



구성원의 고객응대 스트레스 관리

주기적 면담을 통해 구성원의 고객 응대 스트레스 상황을 점검하며 적절한 조언 및 지원으로 스트레스 경감을 돕는다.

Feed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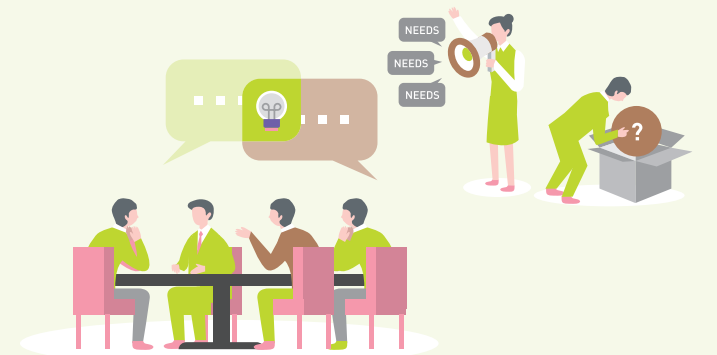
NEEDS

가장 중요한 마케팅 전략 '피드백', 신뢰도 상승에 기여

피드백(feedback)이란 원래 전기회로 관련 용어로, 제어 대상의 출력값에 따라 입력값을 변화시켜 출력을 증대 및 감소시키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러한 의미가 일반적인 용어로 확대되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최초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행위의 원천으로 되돌려 보내어 적절한 상태가 되도록 수정을 가하는 일을 피드백이라고 일컫는다.

피드백은 경영활동에 있어 고객이나 조직 내 구성원 상호 간 소통수단으로 활용되며 현대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고객과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기업경쟁에서 순식간에 도태되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피드백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게 하고, 고객만족도를 알 수 있으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글로벌 그룹인 샤오미(Xiaomi)는 기업 초기,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을 참여시키고 A/S를 하는데 있어 직원 개개인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높게 부여하는 활동 등을 통해 고객친화전략을 성공시켰다. 이로 인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중국 시장 내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그 이후로도 충성고객을 확보해 시장에서 그 위치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고객 의견에 초점 맞춘 제품으로 성부해야 기업도 성장

반면 카메라와 필름 제조사인 코닥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카메라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많은 기업이 고객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구태에 빠져 이와 같은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이러한 위기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성공한 기업이 있으니, 바로 애플(Apple)이다. 애플의 사업 초기에는 사용자 요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출시해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당시 스티브 잡스의 경영원칙 중 하나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잡스는 고객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은 잡스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철저하고 발 빠르게 집중함으로써 애플을 급

성장시켰다. 그 일화로, 1996년 애플로 복귀한 잡스는 아이맥(iMac)에 CD굽는 기능을 제외시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지만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CD드라이브의 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켰으며, 음악이나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아이팟(iPod)을 출시한 후 고객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 그들이 원하는 음악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아이튠즈 스토어(iTunes Store)를 구축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2001년 애플의 매출은 5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337억 달러로, 1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3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애플은 지금도 고객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실현해 내도록 구성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에는 고객의 경험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최고 고객 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 자리를 마련해 이를 특정 전문가에게 위임함으로써 고객의 피드백을 수용하는데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이에 반응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양방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한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고객 커뮤니티를 구축해 기업에 대한 신뢰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속한 피드백 관리 시스템, 높은 기업 매출로 이어져

제대로 된 피드백은 고객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면 큰 효과가 나타난다. 미국 동부 코네티컷 주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의 농제품 전문매장인 스투 레오나드(Stew Leonard)에는 고객의 의견 중 채택된 안건을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 사례로, 매일 신선한 생선을 매장에 진열했음에도 신선도가 낮아 보인다는 고객의 피드백을 접수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원인이 랩 포장에 있음을 확인한 후, 바로 다음날부터 얼음을 채운 진열대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노력으로 매출을 두배 이상 신장시킨 바가 있다. 미국은 기업뿐만 아니라 학술 컨퍼런스나 강연장, 또는 생활속에서 흔히 접하는 레스토랑, 대중교통, 숙박시설 이용 후에도 설문 등의 수단을 통해 고객의 목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피드백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 정치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메일을 보내 자신이 내세웠던 연설문 내용에 대해 피드백 받고 자문을 구해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처럼 미국사회는 고객의 피드백을 곧바로 수렴하려는 문화가 곳곳에 뿌리내려 있다.

기업성장의 필수요건, 신속·정확한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먼저,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축된 네트워크 정보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고객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유대관계

를 형성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렴된 고객의 요구사항은 유관부서와 공유 및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만일 조치가 지연되거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해결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사후조치를 진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가 상시 유지된다면, 고객과의 피드백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최 일선에서 고객과의 피드백에 임하고 있는 구성원을 위한 조치도 중요하다. 혹 있을지 모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지원에도 힘을 기울인다면 더욱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뚝뚝한 근무’ 정착시켜 워라밸에 눈뜨다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불고 있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의 바람이 기업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워라밸의 정착은 야근을 줄이고 정시퇴근, 회식문화 개선을 통해 각 개인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부여함으로써 과로사회를 막고 생활의 질을 높여가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라밸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장시간 근무는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해야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17 고용동향'에서 2016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2,069시간으로 2,255시간인 멕시코에 이어 35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장시간 근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시기를 지나오면서 성실과 근면의 자랑스러운 국민성으로 대변되는 훈장으로 여겨졌고 지금까지 경제성장 신화의 비결로 포장되어 왔지만, 이제 장시간 근로는 개인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 2013년부터 논의되어 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됐으며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어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일·생활 균형 3대 핵심 분야인 오래 일하지 않기(정시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뚝뚝하게 일하기(뚝뚝한 회의 보고,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제대로 쉬기(연가 사용 활성화, 건전한 회식문화, 쉼 권리 지켜주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및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의 단축안은 자기 시간이 부족한 타임푸어를 벗어나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잘 켜진 첫 단추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업무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집중과 몰입으로 비효율적인 야근을 줄여라

기업 내 구성원들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부여하는 중대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야근하지 않기'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야근 없는 날'이나 '패밀리 데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온 지 오래였으나, 일회성에 그치기 일쑤였고 야근 감소의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야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과 몰입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각 기업에

서는 이를 위한 묘수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하루 근무시간 중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특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임직원들이 몰입해 일하도록 무분별한 회의나 보고, 외부 행사, 갑작스런 업무지시, 등을 가급적 자제하는 '집중근무 시간제'를 실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옆 직원과 마주보도록 하지 않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책상배치를 바꿈으로써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고 쓸데없는 수다를 줄여 업무에만 집중하는 기업도 있으며, 야근을 아예 없애기 위해 저녁 업무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무실 PC를 차단하는 'PC오프제'도 정착시키고 있다.

일본의 한 유명 속옷 제조사에서는 CEO가 직접 나서 '잔업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야근자의 해당부서에 예산 삭감 등의 벌금제 운영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자리를 가져 근무시간의 집중을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실제로 우리 야근문화에 익숙했던 한국인이 덴마크 건축회사에 취업해 한국처럼 일했다가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고 일주일간 강제 휴가를 받았던 일은 유명한 일화이다. 한국에 비해 업무강도는 더 강하지만, 야근은 나쁜 근무행태라는 인식 하에 장시간 근무자는 효율성 없는 직원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회사도 구성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가정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리자 휴가 촉진제도'와 '정시 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 16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회사와 구성원이 근로시간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그 첫 단계로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해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임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우리회사는 '선택적 시간근로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함께 도입해 근무유연성을 높여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바뀌고 근무시간 단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제한된 업무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 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10대 근무혁신

출처 : 고용노동부



‘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를 통해 본
우리회사의 무인기 개발현황과 전망

우리 군의 미래 핵심전력, KAI의 무인기가 떠오른다

우리회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세종
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육군본부가 주최하
는 ‘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에 참가해 육
군의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최적의 솔
루션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우리회사
가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를 살펴보고 이를 통
해 우리 무인기 개발의 현황과 그 전망을 알
아보자.
글. 회전익사업팀



즉각타격형무인기

차군무인기

수직이착륙 무인기

K-UCAV

KAI의 미래형
무인기시스템



KAI의 무인기 개발
주요경과



Unmanned Aerial Vehicle

1991~
2004

“송골매”
개발/납품

2007~
2009

사단무인기
자체선행연구

2008~
2015

무인전투기
자체선행연구

2010~
2011

무인기 표준
S/W 개발

2011~
2012

반디호 OPV
개조연구

2011~
2013

즉각타격형무인기
선행연구

2012~

차기군단
무인기 개발

2017~

수직이착륙
기술시범기 개발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인명피해 최소화와 전투효율성 상승 효과
전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무인기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칩이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산업이다. 우리회사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는 무인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미 군단급 정찰무인기인 ‘송골매(Night Intruder 300)’의 체계개발과 양산을 완료해 국내 최초로 무인기 전력화에 성공하였다.
송골매는 주야간 정찰과 전장 감시, 표적 획득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탐색·실용 개발을 마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서 전력화에 성공했다. 이미 한국 육군 5개 군단 및 해군에서 4,000쏘티(Sortie, 단독 항공기 출격 횟수) 이상의 임무비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전 배치 이후에도 영상감지기체계, GPS항재밍(Anti-jamming) S/W 및 지상장비 성능개량 등을 통해 감시 정찰 능력을 보강해 왔다.
현재 우리회사는 송골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인기 개발을 지속하면서 미래 핵심전력인 드론봇 전투체계 솔루션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드론봇이란 드론(Drone, 무인비행체)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핵심 표적을 정찰용 드론으로 감시하면서 유사시 공격형 드론을 이용해 타격하는 전투부대를 말한다. 드론봇 전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병력 위주의 부대를 첨단 드론으로 대체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력 절감과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군사·전략적인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드론봇 전투체계의 전력화에 매진하고 있다.

드론봇 전투체계, 육군의 5대 게임체인저
우리회사는 지난 4월3일부터 5일까지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위한 솔루션으로 다양한 무인기를 공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드론봇 전투체계의 비전과 운용개념, 전력발전방향 소개를 통해 민관군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로, 국내 드론봇의 현주소와 미래를 펼쳐보인 장이 되었다. 특히 육군은 복잡한 미래 전장환경에서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일거에 전장의 판도를 바꿔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5대 게임체인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드론봇 전투체계를 핵심으로 삼아 기존 병력을 대체하고 전투효율성을 상승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회사는 드론봇 전투체계 솔루션을 선 제시함으로써 소요군 전력화 방안 연구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국내 최고 무인기체계 업체로서의 기술역량을 홍보했다.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무인기(NI-600VT), 정찰과 타격이 가능한 즉각타격형 무인기(DK-20, DK-150), 항후 병력자원 감소에도 전투력 극대화가 가능한 유·무인기 복합전투체계 등을 선보여 육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광범위한 작전 수행에
활용 가능한
첨단 무인기

우리회사의 미래 주력 무인기 NI-600VT 공개

최초로 실물이 공개된 수직이착륙 무인기 NI-600VT(Night Intruder-600 Vertical Take off & Landing)는 우리회사의 미래 무인기사업의 주력 기종으로, 활주로 확보가 어려운 야지나 함정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하고 헬기와 같이 제자리비행(Hovering)이 가능하며, 광학적외선센서(EO/IR)와 정밀레이더(SAR) 등 임무장비 탑재능력이 우수해 작전야지나 함정 등에서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한 무인기다. 특히 NI-600VT는 600kg급 정찰용 수직이착륙 무인기로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회사가 자체적으로 R&D 펀드를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다. 또한 신형 헬기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부품 노후화나 단종 우려가 없어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NI-600VT 성능 수준의 수직이착륙 무인기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회사는 2015년부터 군용, 공공·민간용 등 고객니즈를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비행체 플랫폼을 찾기 위해 세계 유수의 헬기 기종을 분석·개발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을 통한 기술자립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무인화 시스템의 통합·점검을 거친 후 금년 말 까지 NI-600VT의 시범기 개발을 완료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한 이후 시범기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조·개량을 통해 고객맞춤형 제품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을 비롯한 민간·공공 분야 등 다양한 활용도를 지닌 다목적 무인기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각타격형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운용 시스템도 선보여

곡사포 등 기존의 무기체계로 타격이 어려운 은폐 목표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즉각타격형 무인기인 DK 시리즈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우리회사는 기술검증용 시제기를 제작해 비행시험을 마쳤으며, 그 결과와 우리 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측분석을 토대로 소형 DK-20과 대형 DK-150 등 두 가지 형상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데빌킬러(Devil Killer)’로 불리는 DK시리즈 중 소형인 DK-20은 고속비행 능력을 갖춘 소모용 및 저가용 무인타격기로, 입력된 좌표로 우회 침투하여 은폐된 핵심표적을 신속하게 자폭 타격해 적 임무수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체 R&D 투자를 통해 신개념기술 연구로 탄생한 DK-20은 데이터링크, 탄두를 적재해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이 가능하며 체계 구성 간소화로 성능 개량도 용이하다. DK-20을 업그레이드한 대형인 DK-150은 광학/적외선 센서가 탑재되어 감시정찰과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여 육군의 드론봇 전투 체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무인기 시대의
주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기회



이밖에 우리회사는 국내 최초로 유·무인 복합운용 시스템도 공개했다. 유·무인 복합운용 시스템은 유인기에 무인기 통제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유인헬기 조종사가 임무 수행 중 위험지역 정찰을 위해 다수의 무인기를 호출하고 조종사가 헬기와 함께 무인기를 동시에 조종·통제해 입수한 정보를 지상부대와 공유함으로써 우리 군 병력의 안전은 물론 작전수행 성공률도 높일 수 있는 전투체계이다. 앞으로 우리회사는 유인기 및 무인기 체계 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자리매김하여 미래 유·무인 복합운용 시스템 개발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기 개발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우리회사가 개발 진행 중인 차기 군단급 정찰무인기(이하 차군무인기)도 전시됐다. 차군무인기는 군단 작전지역 확장에 따른 감시공백을 해소하고 현재의 군단무인기인 송골매를 대체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해 2012년부터 체계 개발을 착수하여 양산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이착륙이 가능한 차군무인기는 확장성을 고려한 기체로 설계되어 광학/적외선 센서(EO/IR)와 정밀레이더(SAR)를 동시에 탑재하고 장기체공 감시정찰 임무 수행에 적합한 무인기이다. 현재 차군무인기 개발의 시제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회사는 체계종합 및 비행체종합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회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공개한 무인기 외에도 유무인 겸용기(OPV, Optionally Piloted Vehicle), 무인전투기(UCAV, Unmanned Aerial Vehicle) 등 미래 신기술 연구도 지속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에 매진, 미래 무인기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하늘 위 신들, 인간을 만나다

북유럽 신화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인문학

그리스·로마 신화처럼 북유럽 신화 역시 수많은 신의 등장과 함께 방대한 세계관을 담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겐 생소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북유럽 신화 속 이야기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부활하면서 많은 인기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신화 속 그들을 만나보자.

거친 하늘 보며 만든 노르만족의 집단 창작물

최근 국내에 개봉해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마블 영화사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출연진 중 '토르'와 '로키'는 원래 북유럽 신화 속 두 주인공이다. 북유럽 신화에는 유명한 신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딘과 그의 아들 토르와 의형제이자 거인의 아들 로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영화에 서처럼 토르와 말썽꾸러기 로키의 캐릭터는 북유럽 신화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북유럽의 신화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지금의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정착한 노르만족들은 한 밤 중에도 태양이 지지 않고 하늘에서 펼쳐지는 오로라의 향연을 바라보며 고유의 신을 숭배했다. 그들은 저 하늘 위에 자리한 신의 땅 '아스가르드'와 거인의 땅 '요툰헤임'에 사는 신들의 이야기를 창조해냈다. 메마른 땅에서 긴 겨울을 지내는 동안 노르만족들은 그들만의 집단적인 정서가 숨어 있는 북유럽 신화를 만들어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낸 것이다.

아홉 세계의 신과 인간의 공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관과 신들의 계보는 매우 복잡하다. 세상은 커다란 물푸레나무 위에 존재하고 나무가 우주를 뚫고 서 있다고 여겼다. 그 나무에 태초부터 존재했던 니플헤임과 무스펠헤임을 비롯해 하늘의 세계인 아스가르드, 바나헤임, 알프헤임, 땅 위의 세계 미드가르드, 요툰헤임, 땅 속의 세계 스바르트엘프헤임, 헬 등 모두 아홉 세계가 자리해 있으며 여기에 신족, 거인족, 난쟁이족, 인간 등이 등장한다. 신과 거인은 거의 동등하며 난쟁이와 인간은 그보다 열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제우스이듯, 북유럽 신화 속 최고의 신은 단연 오딘이며 그의 아들인 천둥의 신 토르가 유명하지만, 신화는 이들 이전의 조상 이야기와 세상이 탄생되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신화에 의하면 태초에 생명을 얻어 탄생한 '이미르'와 암소인 '아우둠라'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모두 구성할 만큼의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였다. 이미르는 자신의 거드랑이에서 흐른 땀이 남자와 여자거인들로 태어났고, 아우둠라가 할아 먹은 소금돌에서 한 명의 남성이 나왔는데 이들이 오딘의 조상이다. 오딘과 그의 형제는 이미르가 계속해서 거인을 태어나게 하자, 이미르를 죽였고 그가 흘린 피와 시체 각 부위는 바다와 육지, 산, 나무, 하늘, 구름 등을 구성하는 세계를 만들어냈다. 또 하늘을 떠받치기 위해 네 명의 험센 드워프인 노르드리, 수드리,

우우스트리, 베스트리를 세상의 네 구석으로 보내 하늘을 짊어지게 했는데 오늘날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노스(north), 사우스(south), 이스트(east), 웨스트(west)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확대 재생산

입체적이고 복잡다단한 스토리로 얹혀있는 북유럽 신화는 그리스 신화처럼 일원적이지 않은 방대한 대서사시로서 한정된 지면에 모두 요약해 소개할 수는 없다. 신화 속에는 하늘 위 여러 신과 거인들의 다툼, 사랑, 모험, 욕망 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신들의 매력적인 이야기들은 인류가 구축한 새로운 세계를 발굴해 알려주어 오늘날 각종 영화, 만화, 게임 등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와 주인공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마블사의 만화나 영화에서는 토르 시리즈를 통해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신화를 주제로 한 RPG게임을 비롯해 <반지의 제왕> 등 다양한 판타지 소설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북유럽 신화는 자칫 종교전쟁이라는 서양 역사의 한 흐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신화 속 신들이 연약한 인간을 거인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이미르의 눈썹과 속눈썹을 뽑아 중간계 가장자리에 성벽을 쌓고 그들이 만든 인간세상인 미드가르드에서 자손을 낳아 번성케 했지만, 정작 인간의 역사는 신들을 망각하려 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입에서 입으로 대물림되어 시와 노래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의 북유럽 신화로 재탄생해 인류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북유럽 신화는 탄생배경부터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리스 신화에 비해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묵직하고 힘이 넘치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재미를 벗어나 인류 정신사의 한 모태가 됐고 지금은 풍요로운 문화 콘텐츠에 깊숙이 자리 잡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록 신들이 인간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싸웠던 '나그나로크'라는 최후의 전쟁에서 종말을 맞긴 하지만, 하늘 위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확대 재생산되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WHAT'S NEW KEYWORD로 보는 최신 항공우주 뉴스

중국, 세계 최초로 상용 개발된

유인드론 비행 성공

우버, 인텔 등 드론택시에 대한 세계적인 개발 열풍이 부는 가운데 중국 광저우에 소재한 스타트업 드론 제조 기업 '이항(Ehang)'의 유인드론 '이항-184'가 세계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다.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이항-184는 희망 경로를 입력하고 단추를 누르는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300~500m 상공에서 약 23분 동안 자율주행하며 15km 거리를 왕복 비행하는데 성공했다. 이미 누적 1,000회 이상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 드론은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데, 3시간이면 완전 충전할 수 있고 짐은 120kg까지 실을 수 있으며 최고 시속은 100km에 달한다. 이항 측은 1인승 외에 2인승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며, 금년 안에 드론택시 상용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HANG-184



NASA, 록히드 마틴과 소닉붐 없는 초음속기 개발 착수

초음속 여객기의 상용화는 지난 수십 년 간 항공산업 분야의 목표이자 숙제였다. 1960년대 대 서양을 3시간30분 만에 횡단하는 초음속기인 콩코드기가 있었지만, 초음속 항공기의 비행 중 발생하는 폭발음인 소닉붐의 소음 문제로 2003년 퇴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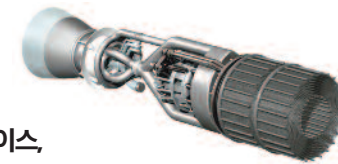
미 항공우주국(NASA)은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소닉붐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용한 초음속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X-PLANE'이라고 명명된 초음속기 개발을 위해 NASA는 지난 4월 2일 2억 4,750만 달러를 들여 록히드 마틴에게 설계와 제작, 시험을 발주하는 계약을 마쳤다. NASA는 록히드 마틴이 선보일 시제기가 고도 1만6,764m에서 시속 1,513km로 순항하면서도 겨우 75dB 정도의 승용차 문 닫을 때와 비슷한 소음을 낸다고 밝혔다. X-PLANE은 전체 길이가 29m로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크기이며, 첫 시험비행은 오는 2021년으로 예정돼 있다. NASA측은 X-PLANE 개발이 성공하면 새로운 항공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토 횡단 비행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에 갇혀 있는 하늘만 보고 살 수밖에 없듯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울타리를 넘을 수 없다.

우리회사는 언제나 급변하는 세계 항공우주 환경을 주시하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뉴스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뽑아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SABRE



보잉·롤스로이스,

신개념 우주발사체용 엔진 개발 투자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과 항공기 엔진회사인 롤스로이스가 새로운 개념의 우주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의 벤처기업인 리액션 엔진(Reaction Engines Limited)사에 약 38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세이버(SABRE, Synergistic Air-Breaking Rocket Engine)'라는 이름의 엔진은 제트엔진과 램젯, 로켓엔진이 결합된 멀티 사이클 엔진이다. 제트엔진 모드에서는 유입된 고온의 공기를 수소로 연소시켜 추력을 얻고 음속 5 이상에서는 공기 중 산소를 액화시킨 후 이를 수소와 반응시켜 로켓 엔진처럼 작동하는데, 1,000도에 이르는 뜨거운 공기를 100분의 1초 만에 영하 150도로 떨어뜨리는 소형 냉각 장치를 개발해내야 하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 기업의 혁신적인 엔진이 탄생된다면 앞으로 2단 이상의 로켓 없이 인공위성을 곧바로 우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LEEPING SECTIONS

에어버스, 항공기 화물칸 개조 승객용 침대 배치

에어버스가 여객기 하부 화물칸에 승객의 편의를 위한 '침대석'을 마련한 여객기를 선보인다. 지난 4월 10일 에어버스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 항공기술 박람회에서 항공설비 기업인 조디악 에어로스페이스(Zodiac Aerospace)와 손잡고 여객기 화물칸의 일부 공간을 승객용 침대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항공기에도 설치되어 있는 모듈 형태의 침대석에 비해 이번에 공개한 화물칸 개조 침대석은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있고 라운지, 회의실, 거실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화물용 공간으로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에어버스는 자사가 제작한 A330기에 침대칸을 설치한 후 2020년 각국 항공당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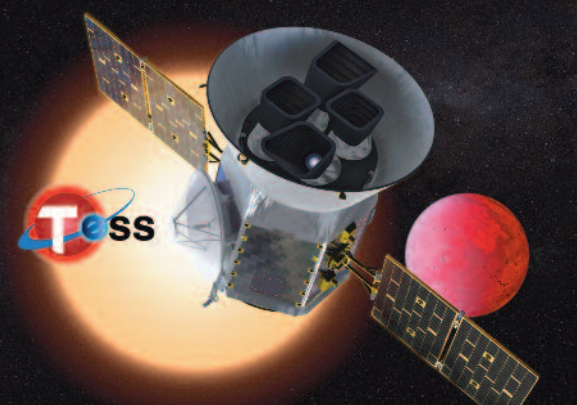


태양계 밖 외계행성 탐색위성 발사 성공

TESS

태양계 저 너머에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생존 가능한 행성이 있을까.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지난 4월 18일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 커버내럴 우주센터에서는 스페이스X의 팰컨9에 '천체면 통과 외계 행성 탐색 위성(Transiting Exoplanet Survey Satellite)'을 실어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일명 '테스(TESS)'로 불리는 이 위성은 발사 후 두 달 정도 장비 검사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작동할 계획이며, 달에 가까운 궤도에 진입하면 13.7일 주기로 지구를 돌면서 2주에 한 번씩 관측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한다.

테스는 지난 2009년 발사된 케플러 우주 망원경보다 400배나 더 넓은 우주를 탐색하면서 약 2만 개의 외계 행성을 찾을 것이며 지구형 행성도 500개 이상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NASA 측은 밝혔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팀빌딩 현장 속으로

KAI 전체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2018년 시작과 함께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MRO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제 미래 항공사업을 열어가기 위한 전환점으로 APT사업의 성공적 수주를 위하여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조직 구성원 간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팀빌딩을 통해 결의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각 조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소통의 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각 팀별 야외 프로그램 마련해 신뢰를 다지고 소통하는 시간 가져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조직 속에서 혼자 일을 해낼 수 없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회사의 경우 팀별 또는 팀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 팀빌딩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창출된 조직개발 기법으로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선해 업무 수행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은 우리회사가 지정한 '조직 활성화의 날'로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마련한 팀빌딩 행사였다. 이날 만큼은 우리회사의 모든 직원이 각 팀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등산이나 레저활동, 캠핑 등을 진행하며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각자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소통을 강화했다. 완벽한 팀보다 오래 갈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개개인의 역량보다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를 함께 고민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마인드를 지닌 팀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오래 가는 팀이 아닐까.



통영에서 루지도 타고 동피랑도 구경하고

12명의 기체공정관리팀은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통영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스카이라인 루지를 체험하며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렸다. 점심에는 자연산 회를 즐기고 동피랑 마을을 산책하면서 일과시간에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팀원들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 차세대 ERP시스템인 'KAI-ONE'의 뜻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즐기는 게임으로 선·후배 모두 대동단결!

LCH/LAH 개발 등 바쁜 업무에 여념이 없었던 조립생산팀6직은 함께 어울려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조직 활성화의 날을 맞아 봄날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야외에서 복불복 룰렛, 제기차기 등 신나는 게임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선·후배간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팀빌딩 행사였다. 조립생산팀6직 화이팅!



열정적인 체육행사로

팀본딩(team bonding)!

“고생하는 너를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운다. 내가 뭐 도와줄 것 없나?” 너로 인해 내가 아프고 나로 인해 네가 치유되듯 우리는 하나로 뭉쳤다. 지원체계 기획팀은 진주에서 체육행사를 실시, 파트별 및 YB/OB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감춰진 능력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다. “땀으로 엮인 지원체계기획팀, 열정으로 뭉친 팀 본딩!”

봄날의 꽃향기 속에서 ‘실빌딩’으로 뭉치다

이번에는 팀빌딩이 아니라 ‘실빌딩’이다! 세부계통실은 조직 활성화의 날을 맞아 산하 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주 월아산 산행을 실시했다. 소형 헬기세부계통팀, 헬기세부계통팀, 헬기추진계통팀 소속 직원 모두가 함께한 이번 산행에는 최종호 개발본부장과 이진균 전문도 동참해 진달래꽃 향기가 가득한 봄날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다.

세부계통실 실빌딩은
산행이네요~





KFX지원체계팀

다 덤벼시요~!

탕탕! 서바이벌 게임으로 박진감 최고!

한층 포근해진 봄날 KFX지원체계팀은 야외 모의 전투 게임장에서 3팀으로 나누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가상 서바이벌 레포츠를 즐겼다. 게임복장과 서바이벌 총기를 갖추고 마치 전투현장에 나와 있는 듯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고, 럭셔리한 야외 바베큐식사, 족구 등 체육활동, MVP 추첨과 시상 을 끝으로 팀원들의 단합과 KFX 개발 성공을 다지는 팀빌딩 행사를 마쳤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KFX지원체계팀 화이팅!”

장소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의 연결고리

1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의 기체생산1팀은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기 위해 가까운 사천과 남해의 명소에서 각 직별로 1박2일의 팀빌딩 행사를 진행했다. 1직은 삼천포 남일대, 2직은 삼천포 실안, 3직은 사천 비토섬, 4직은 남해 창선에서 각각 팀빌딩을 실시,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기체생산1팀



위성기계팀

미션과 함께 하는 봄날의 산행

위성기계팀은 그룹별로 나누어 대전 근교에 위치한 수통골 산행을 진행했다. 친목 도모와 더불어 산행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미션을 전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선물을 수여하기도 했다. 정상에 가장 먼저 도착한 3명에게 주어지는 '내가 제일 빨라상'과 '베스트 포토상'이 바로 그것. 그러나 이번 산행의 진미는 역시 오리백숙과 파전이 어우러진 막걸리였다.



KFX유압착륙팀

직급과 나이를 떠나 마음을 나눈다

KFX유압착륙팀은 합천에 위치한 연수공간인 비채움에서 직급과 나이를 떠나 다함께 어우러지는 팀빌딩 행사를 실시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성원들의 생각을 유쾌하게 나누기도하고, 각 그룹별로 사진을 재미있게 패러디해 KF-X PDR(기본설계검토) 성공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작은 불꽃놀이를 펼쳐 팀원들이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했다.

벌칙 수행을 막기 위한 팀 경기로 후끈!

하중동특성팀은 진주 대평면의 한 펜션에 모여 팀빌딩 행사를 1박2일 간 실시했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짝피구와 인간 윷놀이를 통해 진 팀이 벌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어느 때보다 승부욕이 넘치고 즐거웠던 이번 경기 결과, 백팀이 승리해 청팀이 취침 전까지 벌칙을 받고 기념사진도 남겼다.



하중동특성팀



부들부들 복수하겠어!



조립생산팀1직

선후배 간의 장벽을 허무는 젊음을 만끽하다

전체 구성원 중 70% 정도가 20대 사원들로 구성된 조립생산팀1직은 조직 활성화의 날을 맞아 즐거운 분위기 속에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를 가졌다. 게임과 생일파티 등을 진행하면서 젊음을 함께 느끼고, 동료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알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됐다.

하나된 마음으로 뜻 깊은 추억을 만들다

KFX체계종합팀은 남해에서 KFX체계실장인 차재병 상무와 4명의 신입사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K-FX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팀빌딩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년을 맞은 박석준 수석에게 팀원 모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하고 함께 노래를 열창하는 등 마지막 추억을 쌓아나갔다. 특히 이창준·이해철 선임이 팀원을 위해 마련한 한방백숙요리로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팀빌딩이 되었다고



선배들이 술선수범해 팀빌딩 완료!

국내사업관리팀은 1박2일의 일정으로 삼천포 각산 인근 펜션에서 팀원들이 합심해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마련해 오붓한 팀빌딩 행사를 진행했다. 둘째 날 아침에는 후배들을 위해 팀내 선배들이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하는 등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아침 식사 후에는 각산을 산책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팀의 단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

지원체계선행개발팀은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삼천포의 외딴 섬인 저도에서 1박2일간의 팀빌딩을 시행했다. 마치 운명을 함께 하듯 한 척의 배에 몸을 싣고 도착한 저도에서, 바다 위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일행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말았다. 팀원들은 벚꽃이 만발한 섬 주변을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눴다.



여수 밤바다와 오동도에서 봄날 정취 만끽

고정익협력팀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돌산대교와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였으며, 저녁에는 낭만포차에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회포를 풀었다. 다음날 팀원들은 오동도로 이동, 동백꽃도 감상하고 2인 자전거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날렸으며, 마지막으로 느림보우체통에 자신만의 사연을 담은 엽서를 넣으면서 즐거운 팀빌딩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랑도 벚꽃길에 피어난 팀원들의 웃음꽃

조직 활성화의 날을 맞아 무인기개발2팀은 고성에서 배를 타고 약 20분이면 닿는 아름다운 섬 사랑도에서 벚꽃길 트래킹과 산행을 실시했다. 둘레길의 벚꽃들 사이로 한동안 미뤄두었던 이야기꽃도 활짝 피어났다. 팀원들이 산행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길, 서로 얼굴만 보아도 번지는 미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봄꽃 만발한 그 길을 걸어요~

봄별이 따사로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KFX구조해석팀은 사천 이구산을 트래킹하며 모처럼 팀원들과 함께 비지땀을 흘렸다. 트래킹이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꽤 있었지만 알뜰달록 봄꽃이 만발한 그 길을 걸으며 바쁜 업무를 잠시 잊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은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막힘없이 열려 있는 이구산 정상에서 바라본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니 새로운 힘이 샘솟는 듯 했다.



벌써 힘든거 아니지?



“30년 업무 노하우로 KAI의 힘이 되겠습니다”

기체생산1팀2직 윤종복 전문기술원



지난해 8월 기체생산기술2팀에서 KF-X TRP SKIN 제품을 개발할 때 촉박한 일정과 대형제품으로 이동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기체생산1팀2직 윤종복 전문의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 측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TRP SKIN의 이동 등의 제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에는 무인헬기 Cowl의 3D 모델링을 위한 정보나 데이터 확보가 미비해 고민에 빠져 있던 담당자의 고충을 목격한 윤 전문이 제시한 역설계 방안을 이행하고 CMM 측정을 지원받음으로써 Cowl의 3D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또 지난 3월 기체생산기술2팀에서 LCH의 고난이도 부품을 개발할 때에도 치공구와 복합재 본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윤 전문이 제시한 검증방법을 실행하고 CMM 측정을 지원받아 담당 엔지니어의 고충을 해결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협조로 적기에 양질의 제품을 개발해 고객 만족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평소 윤 전문은 특유의 인간미와 친화력을 발휘해 부서 간 협력에 앞장서고 협력업체 기술 교육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어 기체생산기술2팀 전시복 차장의 추천을 받아 KAI People로 선정됐다. 윤종복 전문은 “작은 일이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저의 노하우가 도움이 된다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KAI인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3월의 ‘KAI People’ 3인 선정

“선배님들의 가르침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센서무장팀 김명수 선임연구원

TA/FA-50 양산·운영 중에 발생하는 기총(GUN Port) 문제로 인해 사내외 기총 정상화 T/F를 운영하면서, 기총 구성품에 전반적인 기술사항과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납품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불만사항까지 검토됐다.

고정익운영기술팀 권정혁 과장과 고정익ILS개발팀 정동우 과장이 추천한 센서무장팀 김명수 선임은 기총 개발담당자로서 복잡하고 난해한 기총 시스템을 검토·분석하면서 원제작사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원제작사의 기술 대응에서도 적극적인 논리로 우리회사와 고객의 요구안을 확보했다. 또한, 김 선임은 정부기관과 고객과의 기술협약에도 개발담당자로서 기술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고객 의문사항과 불만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현상확인 및 고장탐구를 위해 운영기지 및 타 운영기지를 조사하면서 고객과의 협의 및 상세 요구도를 설계 개선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펼쳤다. 아울러 개선안에 대해 직접 고객에게 장단기 방안 및 임시조치 방법까지 설명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신뢰를 확보해 가동률 상승에 기여했다. 김명수 선임은 “저 혼자의 힘보다 선배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영학 수석님, 이종원 책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며 KAI People 선정 소감을 전했다.

우리회사는 매월 부서간
원활한 업무 협조와 고객 만족,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과 성과를 거둔
임직원을 선정하는 시상제도인
‘KAI People’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심사 후
선정된 3인의 면면을 만나보자.



“문제 해결에는 나와 너가 따로 없지요”

헬기비행제어팀 양창덕 선임연구원

비행성능팀은 작년 하반기 무장비상분리 관련 해석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됐는데 기존의 전산유체해석 방식으로는 과도한 계산시간이 소요되어 기간 내에 안전분리 영역을 만드는 업무에 차질이 우려됐다. 류민형 연구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헬기비행제어팀 양창덕 선임이 지난해 상반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에 발표한 비행역학 S/W 활용 관련 논문을 접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헬기비행제어의 전문가로서 LAH/LCH 개발에 매진하며 다양한 언어의 코딩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양창덕 선임은 평소 친절하고 부서 간 업무 협조에도 적극 나서는 사우로 평가받고 있었다. 류민형 연구원은 LAH 무장비상분리 해석 기법을 구축하는 데 있어 비행역학 S/W를 활용하고자 양 선임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양 선임은 류 연구원의 요청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도움을 주었다.

또 해당 S/W를 사용하면서 초창기 발생하는 의문점들은 양 선임이 하나하나 자세히 조연해 주며 함께 고민했고, 이를 통해 구축하고자 했던 프로세스의 완성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류민형 연구원의 추천으로 KAI People에 선정됐다. 양창덕 선임은 “제가 했던 업무가 다른 팀 업무에도 도움이 됐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태국에, 자재기획팀 이상배 과장은 한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가 한국에 자주 들어오시긴 하지만 서로의 시간에 맞춰, 서로가 필요할 때 만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늘 서로를 생각하면 걱정과 애뜻함이 앞서는 모자(母子). 곧 있으면 태국으로 다시 돌아갈 어머니를 위해 이상배 과장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어머니와 아들의 기억에 남을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 호캉스 : 호텔과 비캉스의 합성어로 호텔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비캉스를 말한다.

자재기획팀 이상배 과장이 준비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선물 같은 하루

힐튼 부산에서 즐긴
엄마와 아들의 특별한 호캉스*

떨어져 있어 더욱 애뜻한 모자(母子) 사이

2013년 우리회사에 입사해 어느덧 5년차를 맞이하는 자재기획팀 이상배 과장. 자재기획팀의 주요 업무는 자재에 대한 재고를 관리하고 자재를 구매하는 구매 측과 자재를 소요하는 사내 부서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회사 일은 이제 어느 정도 손에 익었지만, 아직도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은 가끔 적응이 안 될 때가 많다.

아플 때나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이 더욱 많이 생각나는 이상배 과장. 특히 얼마 전에는 맹장수술 때문에 꽤나 고생을 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났다고 한다. 그래도 명절이나 아플 때 곁에서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들이 있기에 가족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다.

9년 전에 태국으로 이상배 과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생활 터전을 옮겼다. 처음에는 외삼촌이 태국에서 운영하고 계신 '더 비빔밥'이라는 한식당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태국 내에 10개의 직영 매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태국에서는 인정받고 있는 한식당이다. 하지만 현재 어머니는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미용 관련 사업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나뿐인 누나 역시 한국과 태국에서 통역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다 함께 모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감동한 이벤트

항상 바쁘게 살아온 어머니에게 이상배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한다. 평소 여행이라고 하면 어머니와 주로 태국 내를 여행하는 게 당연했다.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거나, 잠깐의 외출은 해봤지만 이렇게 1박2일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은 거의 처음이다.

북카페 '이터널저니'



“태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일을 하시니까 자주 한국에 오셔도 바빠서 제대로 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좋은 기회에 만나면 타국에서 고생하고 오신 어머니와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들었을 때 좋아하실 어머니 생각에 이상배 과장은 1주일 전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평소 친구들에게 아들 자랑하는 낙으로 사는 어머니가 아들 회사에서 이런 것도 보내줬다며 싱글벙글 하실 모습이 떠올라 이곳에 오기 전까지 주변 맛집이며, 둘러볼 곳을 꼼꼼히 찾아본 것이다.

이상배 과장의 어머니인 전운정 씨는 뜻밖의 아들 제안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한 번 더 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제가 이번에는 한국에 좀 오래 있다가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한국에 왔지만 아들과는 따로 오랜 시간을 보내진 못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딸과의 삼척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들은 워낙 일 욕심도 많고, 일 때문에 바쁜 걸 알기에 선뜻 함께 여행을 가자고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보 이벤트에 당첨되면서 이미 해놓았던 숙소 예약도 전부 취소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아들을 만났다.

탁 트인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힐링

간단한 여정을 풀고 우선 방을 둘러본다. 오늘 어머니와 이상배 과장이 묵을 방은 트윈디럭스룸으로 개별 발코니에서 파노라믹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시야에 걸리는 것 없이 탁 트인 오션뷰는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줘, 제대로 된 휴양을 하기엔 안성맞춤이다.

태국에서 늘 멋진 바다 풍경과 마주하는 어머니지만 한국에도 좋은 휴양지가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이상배 과장의 바람을 100%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곳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 제법 쌀쌀한 날씨에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간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평소 전화 통화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로 만나니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만 느껴지는 모양이다. 오랜만의 여유에 어머니는 문득 이상배 과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낸다.

“너 다섯 살 때쯤이었나.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나랑 너랑 한 쪽에 서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너한테 와서 부딪힌 일, 기억할지 모르겠네. 두 아이 모두 넘어진 상태고 내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딪힌 아이를 혼내려고 했더니, 네가 말렸잖아. ‘재도 아플 거야’라고 말이야. 그때 너무 기특했고, 그 고운 심성 그대로 지금까지 커준 너한테 항상 고마워.”

늘 믿어주는 어머니, 늘 믿음직한 아들

어머니에게 이상배 과장은 항상 ‘믿음직한 아들’이다. 아들 가진 어머니들에게 자신의 자식이 소중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속 한 번 안 썩히고 알아서 뭐든 척척해내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일인 지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기는 편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KAI 외에도 여러 기업에 합격을 했었는데,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라며 KAI를 선택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별 이야기 없이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배 과장이 다 알아서 잘한다고 하지만, 이상배 과장은 무슨 일이든 자신을 믿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언제나 제가 최고라고 하시며 기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집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걸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되도록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집이 어려운 적이 있었다는 걸 제가 커서 알았을 정도니까요.”

나를 믿어준 부모님이지만 이제는 이상배 과장에게 걱정거리도 생겼다. 바로 어머니의 ‘건강’이다. 앞으로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곳에 가고,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쉬고 운동 안하는 게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챙겨달라고 당부한다.

“어머니께 제발 운동 좀 하시라고, 건강 챙기라고 항상 당부 드립니다. 그래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체코 프라하 여행을 위해서라도 꼭 운동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같이 못 가더라도 어머니 시간 나실 때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들의 스트레스다. 이제까지 알아서 잘 해온 아들이지만 워낙에 일에 대한 책임감이 크기에 돌아오는 스트레스도 클 것임을 누구보다 어머니는 잘 알고 있다.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고, 잊어버리기도 하며 마음에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게 어머니의 바람이다.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추억을 곱씹고, 함께 해 나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일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며 함께 보내는 두 사람의 시간은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임이 틀림없다.

- 1_ 바다를 걷는 힐튼호텔의 산책로를 따라
- 2_ 혼자 지내는 아들이 늘 걱정인 어머니
- 3_ 셀카를 찍으며 둘만의 추억을 남기는 모자



도심 속에서 만나는 완벽한 휴식처!
힐튼 부산

힐튼 부산(Hilton Busan)은 글로벌 호텔 체인 브랜드 힐튼(Hilton)이 2017년 7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오픈한 국내 최고 수준의 어반(Urban) 리조트 호텔이다. 힐튼 부산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바다와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산의 숨겨진 관광 명소인 기장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해 있으며 해운대 해수욕장과 센텀시티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힐튼 부산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레저, 미팅, 비즈니스, 웨딩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기존 호텔들과 차원이 다른 최상급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상 10층 규모로 프라이빗 발코니가 있는 총 310개의 객실과 3개의 레스토랑, 대규모 국제회의와 웨딩, 다양한 행사를 위해 최대 1,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2개의 대연회장과 7개의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빼어난 해안 경관이 파노라미뷰로 펼쳐지는 오션 인피니티풀과 함께 성인전용풀, 어린이풀, 자쿠지 등이 마련돼 계절에 관계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다.

부대시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은 ‘아난티 코브’ 내부의 ‘아난티 타운’과 ‘이터널 저니’다. 숙박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아난티 타운’은 최고급 레스토랑부터 라이프스타일숍 등 15개의 브랜드로 채워져 있으며, ‘이터널 저니’는 아난티 타운에서 가장 큰 500여 평의 규모로 다양한 책과 전시회 등 지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2

홈페이지 hiltonbusan.co.kr

객실타입 디럭스 & 프리미엄 객실 / 이그제큐티브 객실 / 오션뷰 스위트 객실

대표번호 051-509-1111 객실예약 051-509-1114

마음만은 요리 9단, 맛깔난 파스타 맛보실래요?

명란 파스타와 쿠스쿠스, 그리고 엔다이브 샐러드

“엔다이브는 배추처럼 생긴 서양채소인데 식감은 배추보다 더 아삭하죠. 보통 샐러드의 주재료로 사용되는데 활용법이 무궁무진해요. 오늘은 새우를 가미해서 엔다이브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어요.”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가기 전,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건장한 남정네 두 사람이 출력해 놓은 요리 레시피에 펜을 끄적거리며 요리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이곳은 진주 내동면에 소재한 ‘빵을 요리하다’라는 요리공방. 빵과 어울리는 다양한 요리수업을 하는 이곳에 우리회사 소형헬기세부계통팀 백태준 연구원과 헬기추진계통팀 윤민근 연구원이 등장한 것은 이탈리아 가정식을 만들어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함이다.

오늘 만들 요리는 명란 파스타와 쿠스쿠스, 그리고 엔다이브 샐러드다. 일반적으로 생소한 음식이긴 하지만 둘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 선생님의 설명에 맞춰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특별한 재료와 맛으로 봄철 입맛 급상승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명란 파스타’는 건조 파스타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식 전통 요리로,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파스타의 주인공인 명란은 냉동한 저염명란을 사용했다. 저염명란은 그냥 먹어도 일반적인 명란젓보다 짜지 않고 와인이나 사케와 잘 어울린다.

숏파스타의 한 종류인 ‘쿠스쿠스(Couscous)’는 밀가루 등을 반죽해 만든 좁쌀 크기의 아주 작은 덩어리로, 원래 이슬람권 문화가 산재한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래해 이탈리아를 비롯 남부 유럽국가에 정착한 파스타다. 예전 인종차별주의자로 유명한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이슬람에 대해 쿠스쿠스 냄새가 지독하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난과 함께 벌금을 냈던 이야기는 유명하다. 오늘은 쿠스쿠스에 포도와 샐러리, 건과류, 올리브오일 등을 첨가해 건강식을 만들어 볼 참이다.

끝으로 일반 마트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웰빙채소인 엔다이브(Endive)를 주 재료로 하여 ‘엔다이브 샐러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살짝 볶은 새우를 넣은 엔다이브 샐러드는 래디쉬와 파슬리, 브리치즈, 예살롯 등 몸에 좋은 특수한 식재료를 가미해 봄철 입맛을 돋게 하는 요리로 탄생했다.



소형헬기세부계통팀 백태준 연구원 & 헬기추진계통팀 윤민근 연구원

항사와 미세먼지로 고단한 일상이지만, 한결 포근해진 햇살과 어디를 가도 활짝 핀 꽃들의 향연을 접할 때면 역시 봄이 왔음을 알게 한다. 이럴 때 입맛을 살려줄 상큼한 샐러드와 짭조름한 명란 파스타로 기분 좋은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평소 친한 선후배 사이인 소형헬기세부계통팀 백태준 연구원과 헬기추진계통팀 윤민근 연구원이 모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실력을 발휘해 보기로 했다.

“자신이 만든 요리를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정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선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배려맨과 쾌활남의 ‘찐’한 요리 만남

둘 다 미혼임에도 재료를 썰고, 볶고, 담는 모양새가 많이 해본 솜씨 같
다는 요리 선생님의 칭찬에 두 사람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니나 다를
까, 특히 윤민근 연구원은 요리와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접
요리를 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리 선생님에
게 식재료나 음식에 대한 질문을 마구 쏟아낸다. 지난해에는 사내에서
마련한 ‘웰스토리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바그 스테이크, 큐브 스테
이크, 밀피유 나베 등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자신이 만든 요리를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
람에게 자신의 정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선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같
이 무엇을 만들어 먹는 건 언제나 즐겁고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윤 연구원이 백 연구원에게 같이 요리를 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러한 이
유에서다. 각각 부서도 다르고, 사내에서는 백 연구원이 1년 선배이지만
윤 연구원은 늘 형님처럼 따르곤 한다. 백 연구원은 다정다감하고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
로 윤 연구원에게는 남다른 존재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
을 전하고 요리를 함께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백 연구원은 직장을 다니면서 즐길만한 취미를 찾고 있는 윤 연구원에
게 볼링 동호회 가입을 권유했고, 매주 볼링장에서 스트레스를 함께 날
리면서 급격히 친해졌다. 이제 이 둘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힘이 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조언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고 있다.
“윤민근 연구원은 굉장히 착하고 적극적인 동료입니다. 자신이 먼저 타
인에게 다가가고 성격도 매우 밝아 주변사람들과의 친화력이 매우 좋습
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윤 연구원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1. 능숙한 칼질로 쿠스쿠스 재료를 다듬는 두 연구원
2. 완성한 요리를 뿌듯한 마음으로 찰칵!
3. 드레싱으로 마무리 중인 엔다ιβ브 샐러드
4. 요리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시간



처음 만나는 맛, 깊숙이 만나온 우정

엔다ιβ브 샐러드에 들어가는 양파의 종류 중 하나인 에살롯을 뭉텅뭉텅
썰다가 특유의 매운 향에 사나이의 진한 눈물을 뿌리기도 했지만, 이제
두 사람의 입맛을 돌려놓을 세 가지 요리가 완성됐다. 예쁜 그릇에 음식
을 정성스럽게 담고, 주 요리와 곁들여 먹기 위한 먹물 치아바타와 스페
인 산 고급 샴페인을 세팅해 놓으니 고급 레스토랑 요리도 부럽지 않다.
레시피를 익히면서 하다 보니 장장 1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
지만, 요리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호흡을 맞춰 무리 없이 척척 해낸 요리
이니 뿌듯한 자부심마저 든다.
음식을 예술처럼 요리하든,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요리처럼 하든 간에
어쨌든 식사시간은 즐겁고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다. 이제 태어나서 처
음 먹어보는 요리를 음미하는 시간이다. 와인 잔에 가벼운 느낌의 샴페
인을 부어 목구멍으로 스파클링한 느낌을 채운 뒤 샐러드를 한 입 넣으
니 풍미가 그만이다. 두 사람의 입에서 ‘너무 맛있디’는 감탄이 절로 나온
다. 샐러드에 뿌린 수제 소스에 먹물 치아바타를 찍어먹으니 한 끼 식사
로 손색 없었고 왜 서양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빵을 언제나 식탁 위에 올
려놓았는지 이해가 됐다. 이탈리아 요리에 흠뻑 빠진 두 사람은 ‘역시 우
리가 잘 만들어서 그렇지’라는 자아도취에 빠졌고 이어 파스타로 눈길
을 돌렸다. 명란 파스타는 짜지 않아 놀라웠다. 특히 입 속에서 맴도는
기분 좋은 감칠맛은 둘의 미각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숙성된 쿠스쿠스는 각자의 접시에 덜어 숟가락 가득 입에 넣
고 음미했다. 포도, 오렌지가 쿠스쿠스와 어우러지며 상큼하고 색다른
파스타의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누가 그랬던가. 누군가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영혼을 나누는 일이라
고 그것은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가족처럼 생각하
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에 그러할 것이다.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함께
한 두 연구원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같이 앉아 식사
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해 본다.

Recipe of the month 이심전심 레시피

Myeongran Oil Pasta
명란 파스타

재료 파스타 200g 저염 명란 100g 썰갓 60g
페페론치노, 청양고추, 미림 1T

레시피
①— 파스타는 미리 삶아 물기를 완전히 빼둔다.
②— 명란은 껍질을 벗겨 미림에 잘 섞어 둔다.
③— 썰갓은 잎은 떼어내고 줄기는 5cm 길이로 자른다.
④—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썰갓 줄기를 소금을 약간만 넣고 볶는다.
⑤— 썰갓 줄기가 숨이 죽으면 파스타를 넣고
속이 뜨거워질 때까지 볶는다.
⑥— 명란을 넣고 전체적으로 잘 버무려준 후에
썰갓을 넣고 다시 버무린다.
⑦— 접시에 파스타를 담고 페페론치노를 조금 곁들인다.

Couscous
쿠스쿠스

재료 쿠스쿠스 70g 오렌지 1개, 샐러리 1대, 포도 20알,
민트, 건과류, 올리브오일 3T, 레드와인·식초 1T

레시피
①— 쿠스쿠스는 소금과 올리브오일을 조금 넣고 끓는
물을 부어놓는다.
②— 오렌지는 과육만 발라 두고 샐러리는 다진다.
③— 유리볼에 레드와인,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잘 섞고
과육을 절반 줌 넣어 으깨둔다.
④— 3에 쿠스쿠스를 넣어 잘 섞고 샐러리,
포도, 민트, 남은 오렌지도 넣어
고루 버무린다.
⑤— 버무린 쿠스쿠스를 접시에 담고
구운 건과류를 부수어 뿌려 준다.

Endive Salad
엔다ιβ브 샐러드

재료 엔다ιβ브 2개, 새우 15개, 래디쉬 3개, 에멘탈치즈
(브리치즈), 에살롯 3개, 마늘 2쪽, 올리브오일 5T,
레몬즙 2.5T, 소금 후추 조금

레시피
①— 한입 씹 때어 씻어낸 엔다ιβ브 위에 자른 래디쉬,
에멘탈치즈, 에살롯과 볶은 새우를 얹는다.
②— 다진마늘,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를
잘 섞어 드레싱을 만든 후 채소 위에 적당량을
부어 준다.

인생을 찾아 떠난 30일간의 몽골 일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어야 할 군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말년 병장 시절. 나는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다. 미궁에 빠진 것 같은 나의 인생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몽골이라는 낯선 나라로의 탐험에 도전했다.

글. 지속경영팀 박희상 과장

30일에 걸친 5,000km의 대장정

총 1,564,116km²의 국가 면적, 우리나라보다 17배나 큰 거대한 땅덩이를 가졌으나 인천광역시 정도의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 아직도 유목생활을 영위하며 원시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나라. 그 미지의 나라를 탐험해 보고자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말년 휴가를 나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의 계획을 털어놓고 지원자를 받았다. 고맙게도 2명의 친구가 지원해주었다. 광활한 미지의 땅 몽골에는 도로도, 주유소도 없었다. 울퉁불퉁한 초원의 비포장 길은 시속 50km도 채 내지 못한다. 그렇게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을 향해, 하루 10시간씩 덜컹거리는 지프차로 달렸다.

지구의 ‘화성’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다

4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았다. 몽골인들은 특유의 강인해 보이는 인상 한편으로 순박함이 엮여있는데, 자그마한 제스처에도 매우 즐겁게 웃어줬다. 엘란트라 택시를 타고 납작하게 가라앉은 울란바토르 시내를 바라보니,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다.

울란바토르에서 이틀간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차량 렌트와 장비, 식량 등의 준비를 마친 우리는 무사귀환을 비는 간단한 출정식을 가진 후 한 달여에 걸친 일주의 첫 발을 떼었다. 험난한 루트가 남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일주 방향을 남쪽으로 잡았다.

울란바토르를 벗어나자마자 포장도로가 사라진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인 셈. 끝없는 초원을 바라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 가도 가도 똑같은 풍경. 흡사 다른 행성에 착륙한 듯한 착각에 빠져있을 때쯤 정말로 화성 같은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곳은 공룡 유적지로 알려진 곳인데, 곳곳에 수십만 년 전 공룡의 뼈가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땅에 희끗한 게 보여 살짝 파보니 정말로 거대한 공룡 뼈가 튀어나온다. 이게 공룡 뼈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이곳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오직 공룡의 뼈만이 허를 갖다 대면 달라붙는다고 한다.

글로벌 이심전심을 느꼈던 고비사막

어느 정도 각오는 했으나 고비사막을 향하는 길은 정말이지 순탄치 않았다. 전날 내린 폭우로 길이 온통 진창으로 변한 와중에 앞서가던 여행객들의 차가 늪에 빠져 모두가 차를 빼내려 애쓰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 우리는 즉시 전진을 멈추고 차를 빼내는 데에 한손을 거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이어 도착한 여행객들도, 지나던 몽골인들도 이내 상황을 파악하곤 모두가 한손씩 거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누군가가 부탁하지도 않았건만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모두가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입고 있던 옷이 엉망이 되었으나 힘을 합쳐 차를 늪에서 빼내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기분 좋은 뿌듯함으로 기념촬영까지 마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볼 날을 기약하며 서로의 목적지를 향해 전진했다. 국가, 종교, 이념 등 인간이 그어놓은 규정과 관념들은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몽골의 남쪽 끝 고비사막에 도착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이지만 철조망과 같은 아무런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왕래가 어려운 사막지형이 자연스럽게 국경을 차단한 모양새. 황량하다는 말 외에는 달리 형언할 길 없는 풍경뿐이지만 난생 처음으로 사막을 접해보는 우리에게게는 이조차도 낭만으로 다가왔다.

그 어떤 곳보다 안락했던 게르의 추억

하루 종일 달려도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 어쩌다 만나는 유목민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대접을 해주는 전통이 있다. 원체 사람이 귀한 동네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길을 잃기 십



비포장도로 위를 달경거리며 달리는 차 안에서 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고단함에 적응하며 그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순간, 사고는 일어난다. 친구의 헤딩 한 번에 박살난 유리를 투명테이프로 땀질하고 다시 달리는 모습. 멀쩡한 친구의 이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인 드넓은 초원지대에서는 서로가 주변 지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굳어진 것이다. 양을 몰고 있는 유목민에게 반가움에 인사를 하니 자기 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한다. 저게 혹시 초대 의 의미인가 싶어 따라가 보니 어마어마한 수의 가족들과 그 사이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 그의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그가 살고 있는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 게르로 우리를 인도한다. 게르를 처음 접한 나는 유목민의 특성상 이동이 편리한 텐트 같은 집이겠거니 막연히 상상했으나, 이내 부족한 상상력의 한계를 목도해버리고 만다. 게르 내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락하다. 바닥의 한기를 차단해주는 양털 카펫과 단번에 스르륵 잠들 것 같은 침상 곁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따뜻하게 타고 있는 장작 난로의 온기가 매일밤 극한의 일교차를 자랑하는 이곳의 추위와 싸우며 텐트생활을 이어가던 우리에게 그야말로 별천지처럼 다가왔다.

여독을 풀어주는 훈훈한 인심, 그리고 사진

잠시 후, 구경에 여념이 없던 우리에게 나이가 지긋한 주인어른께서 말로만 듣던 마유주를 내민다. 마유주는 말의 젖을 발효시켜 빛은 솔로, 처음 접해보는 사람에겐 특유의 시큼함과 낯선 향에 거부감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라면과 3분 카레로 연명하던 우리에게 그런 거부감은 사치였다. 주인장은 게가 눈을 감추듯 대접을 비운 서로의 모습에 멋쩍어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매우 흡족해하는 표정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몽골에서는 주인이 대접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 천금 같은 휴식을 제공해주곤 이 이름 모를 유목민 가족에게 아무런 감사 인사도 없이 훌쩍 떠나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출발 전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유목민들에게는 사진이 매우 귀하다고 한다. 살면서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도시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해간 폴라로이드로 즉석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니 주인장은 반색하며 저 멀리 양떼들과 놀고 있는 막둥이들까지 다 부르느라 정신이 없다. 우리의 소소한 이벤트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1. 어둠이 내려앉은 광활한 대평야 위에서 자동차 불빛에 의지한 채 텐트를 치는 모습
2. 유목민의 초대를 받아 말을 타고 게르로 이동하는 모습. 엉거주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3.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크레이터
4. 게르 위로 펼쳐진 무수한 별들. 공해 없는 밤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깨끗하고 아름답다.



낯선 여행객에게 기꺼이 훈훈한 인심을 나눠준 유목민들에게 우리는 즉석사진을 선물했다.



과자보다 저렴한 소고기 값으로 뜻밖의 육식 포텐!

울란바토르에서 식량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30일치를 모두 준비하기엔 보관과 운반 등의 문제가 따른다. 일주 중 기회가 될 때마다 현지조달의 방식을 취하리라 생각했으나 앞서 말했듯 울란바토르를 벗어나면 도시라 이름 붙일 만한 곳이 없다. 지도상에 도시라 표기된 곳도 막상 가보면 원시 촌락의 수준이다. 그래도 다행히 촌락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어지간한 식재료는 구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시골 읍내보다도 못한 촌락이지만 사람구경하기 힘든 끝없는 초원만 보다가 이곳에 다다르니 마치 명동 한복판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다. 이토록 도시가 귀한 이유는 가축들의 먹이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해야하는 유목민들의 특성상 한곳에 정착하여 도시를 이룩하여 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면과 통조림으로 연명하길 일주일 쯤, 어느 시골 시장에서 정육점엘 들렀다. 언감생심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본 소고기 가격에 눈이 번쩍 뜨였다. 소고기 가격이 과자보다 저렴한 것이었다. 2,500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셋이서 배터지게 먹고 또 먹을 수 있을 만큼이 남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소고기 마니아들에겐 이곳이 천국이라.

대자연 속에서 피어난 자급자족의 꽃

식량문제를 타개할 또 다른 방법으로 자체조달도 생각했다. 혹시나 하여 준비해간 낚싯대가 요긴하게 쓰였다. 한 점의 오염도 없는 맑디맑은 강과 호수의 천연 수질, 이곳에서 노니는 민물고기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단백질을 제공해 주었다. 초원 지천에 발에 밟힐 정도로 널린 메뚜기를 잡아다 바늘에 꿰어 흐르는 강물 위에 올려두면 몇 초 만에 물고기가 바늘을 물고 요동친다. 와, 이것이 대자연의 낚시구나!

나만의 포르쉐와 함께 칭기즈칸의 후예가 되다

말을 빼놓고는 몽골을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기마병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칭기즈칸의 후예답게 말은 몽골인들에게 특별한 존재다. 부족끼리 승마술을 겨뤘던 전통이 아직도 전승되어 초원 한가운데에서는 정기적으로 승마대회가 열린다. 말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먹고 잔다는 몽골인답게 어린 아이들조차 눈부신 승마술을 자랑했다. 이곳에서는 10만 원이면 준수한 말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만큼 말이 흔하다. 그러나 평생 말이라곤 타본 적이 없었던 우리는 덜컥 겁부터 났다. 구입해서 제대로 타지도 못할 바에 렌트하여 가볍게 체험해보는 방법으로 의견이 모였다. 우린 유목민에게 각기 2만 원씩 지불하고 사흘 정도 말을 빌렸다. 내게 배정된 우아한 갈퀴를 자랑하는 갈색 말에게 ‘포르쉐’라는 멋진 이름을 붙여줬다. 생전 처음 타보는 말이었으나 당시의 젊은 패기로 부딪히니 금세 적응이 됐지만, 처음 느껴보는 승마의 즐거움을 실컷 만끽한 그 다음날의 대가는 혹독했다. 부서질 것 같은 꼬리뼈와 온 몸의 근육통에 신음하며 겨우 일



누구라도 낚시 왕이 될 수 있는 몽골판 대자연 낚시에 빠져보시라!



여행 내내 즐겨 먹었던 '흠': 간혹 만나는 마을의 식당에서 팔고 있는 몽골의 대중적인 음식이다. 양고기와 몽골 특유의 향신료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가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흠이었다. 가격은 1,000원에서 1,200원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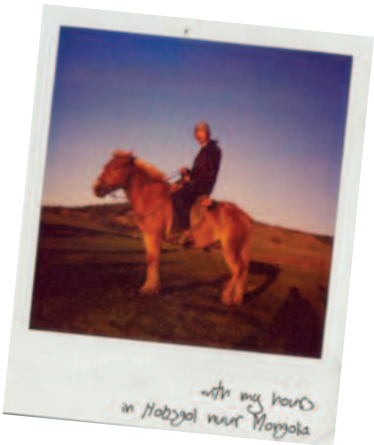


흠스골 호수에서 승마를 즐기는 몽골 아이들. 몽골의 가장 북쪽, 러시아 국경과 접한 경상도 크기의 거대한 이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같이 느껴진다. 주변으로 울창한 침엽수림과 만년설이 그림같이 펼쳐져있다.

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고통에 나의 포르쉐를 포기할 순 없지 않는가.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다시 말에 오르니 어느덧 끝없는 초원을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다. 지평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의 움직임에 몸을 맡긴 채 공기를 가르느 그 느낌이란! 이제 네 발로 굴러가는 포르쉐는 안 탈것 같다.

행복은 어렵지 않다, ‘행복하기’가 힘들 뿐이다

천신만고 끝에 흠스골 호수에 도착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우리에게 이곳이 고생 끝에 다다른 파라다이스였다. 끝없이 펼쳐진 울창한 삼림과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호수, 이곳에서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모든 것이 힐링 되는 느낌이다. 이곳에는 인터넷도, 와이파이드도 없다. 우리에게 오직 광활한 자연과 유목민에게 대여한 게르 한 동, 주인장이 내어준 마유주 한 사발뿐이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 이것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가. 몽골의 대자연과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몽골인들의 삶.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한없이 부족해보일 수 있는 삶이지만 각종 공해와 치열한 경쟁에 찌든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과 천연함이 깃들어 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그늘을 찾아볼 수 없다. 몽골에서 만난 모두는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큰 깨달음을 준 이곳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싶었다.



찰나이거나, 매순간이거나

항공전자팀 이준태 선임연구원

네가 자라는 모든 순간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물론 인생 최고의 순간은 많습디다만 가장 최근 떠난 벚꽃캠핑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평소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지만 우리 딸은 밖에 나가면 집에 가고 싶다고 칭얼댄답니다. 그런 딸이 그 날따라 유독 캠핑을 즐기는 기색이었어요.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모닥불과 랜턴을 불빛삼아 돌이서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다 숯불 속의 군고구마를 꺼내어 우리 딸에게 한입 먹여주니,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엄지 척'을 추켜세워 주는 거예요. 그 찰나에 우리 딸의 첫 심장소리와 첫 걸음마 때 순간들이 필름처럼 머리를 스쳐가면서 우리 딸이 벌써 이만큼 컸구나하는 생각에 가슴 뭉클해졌던 순간이 생각나네요.



고정익ILS개발팀 김세욱 책임연구원

조상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던 어느 여름날

당연히 KAI에 입사했다고 부모님께 말 씀드릴 때가 최고의 순간이지만, 저는 2009년 여름휴가 때, 동국대 중앙도서관 고서실에서, 맘에 범벅이 된 채로, 저의 고조부님 유물인 '사산시집'을 처음 만난 순간이 떠오릅니다. 고조부님께서 세상을 떠난 지도 거의 90년이 되 어갑디다만, 시집 속의 구절구절은 지금도 제게 커다란 가르침을 매일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제각각 지켜온 삶 속에서 누구나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을 추억하며 살고 있겠지요.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적의 찰나'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매순간 순간을 차곡차곡 쌓아온 소중한 기억 그 자체이자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KAI인들은 자신의 삶이라는 영화 속 어떤 베스트 명장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KFX제어법칙팀 양인석 책임연구원

잊지 못할 너의 심장소리

쿵쾅! 쿵쾅! 쿵쾅! 출산을 계획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아이가 허락되었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처음 만난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 그 울림은 어제 들은 것처럼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어느덧 훌쩍 자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의 심장소리를 다시 들어보려 가슴에 귀를 대보면 간지럽다고 도망간답니다.



구성품체계품질팀 백종한 과장

사랑하는 이와 이별, 그리고 극적인 재회

대학생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7년 동안 사귀었지만 여자친구는 수도권, 저는 지방에 직장인 있는 관계로 장거리 연애에 지쳐 그만 헤어졌습니다. 그 후 우연인지 필연인지 둘 다 캐나다로 여행을 가서 나이가가라폭포에서 운명적으로 만났는데, 여자는 남자를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그날을 계기로 다시 재결합하여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헬기비행제어팀 오진근 선임연구원

복덩이 우리 아들이 선물해준 기적

때는 8년 전, 2010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만삭의 와이프가 새벽녘에 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첫째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경이롭고 신기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요? 병실에 누워 아이에게 젖을 물리던 아내를 바라보니 갑자기 걱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반듯한 직장도 없는 일개 대학원 졸업예정자였으니까요. 어떻게 가족을 부양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때 친구 녀석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의 최종 결과발표가 났다는 것이었죠.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산부인과 접수창구에 있는 컴퓨터로 결과를 확인하니 기적처럼 합격이라고 떠있더군요. 3층에서 입원실이 있는 5층까지 단숨에 뛰어올라가 아내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덩이였던 셈이죠. 그때 그렇게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추억을 선물해준 그 회사는 제가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우리 KAI입니다. 아직도 그 때만 생각하면 벅차오르네요.



최종조립생산팀5직 김형래 주임기술원

꽃처럼 고운 어머니 목소리

저희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성대결절이 있어서 항상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십년 넘도록 한 번도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데요.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성대결절 수술을 받으셔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라 2년 후 다시 원래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그때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기체검사직 김대회 수석기술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띠리링~ 띠리링~
18년 전 주말 저녁에 걸려온 전화 수화기에서 들려온 어느 시내버스 기사님의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이신가요? 버스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어서 최근 통화를 누르니 받으시네요."
"아~ 그러세요. 아들 휴대폰입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시내버스에 두고 내려서 기사분이 주워서 주인을 찾아준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제 전화번호의 주인공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팀 류재경 차장

아빠보다 어른스러운 작은 아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제 작은 아들놈을 보면 웃음과 감동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참 어른스럽고 행동도 애늙은이 같은 경향이 다분한 작은 아들이 어쩔 땐 저보다 낫다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할머니 사랑이 참 지극해서 친아들인 저보다 효심이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었답니다. 제 모친은 여든을 훨씬 넘긴 노모여서 귀도 잘 안 들리고 할머니 향기도 많이 풍깁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처럼 그런 부분을 피하고 싫어할 법도 한데, 할머니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도 그 말을 하나하나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 그리고 많이 작아진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100살까지 사시라며 진중하게 말하는 모습에 울컥한 적도 있었지요. 어머니는 점점 더 왜소해져도 아이는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이제는 방이 좀 좁게도 느껴지는데, 꽤 낡고 할머니와 꼭 끌어안고 자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아들로써, 아버지로써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



일상생활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인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머리에도 체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한계치 이상의 에너지를 소진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터리처럼 방전되어버리고 마는 상태를 일컬어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이라고 합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증상인데 사소한 슬럼프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히말라야 꼭 같이 가는 거지?”

치공구직 최승민 전문이
총무팀 전종필 차장에게

『일생에 한번은 히말라야를 걸어라』
신한범 글 / 호밀밭 펴냄



“최승민 전문은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곤 하죠.”

“늘 마음속으로만 함께 꿈꾸던 히말라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 차장님께 들려주고 싶어 선물하게 됐습니다.”

등산 애호가들에게 히말라야는 누구나 동경하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치공구직 최승민 전문은 총무팀 전종필 차장과 함께 사내 산악회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고, 히말라야 등반을 함께 꿈꾸고 있는 산사람이다. 산을 매개로 만난 두 사나이의 진한 우정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내 산악회에서 만난 행복한 산동무

하나의 취미를 공통분모로 삼아 함께 몰입하고 삶을 공유하는 것은 또 다른 인생의 행복이자 낙이다. 최승민 전문과 전종필 차장은 우리회사 '소리개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단순한 직장동료를 넘어 가족과 같은 관계이다. “2009년 가을로 기억됩니다. 전종필 차장은 회사 산악회의 가을 신불산 익새 산행에서 하루 전 혼자 비박을 하고 합류해 산행하는 모습에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으로 각인됐죠. 이후 산악회 내외적으로 교류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전 차장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도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업무적인 면에서도 성실한 사람이며, 적극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 때문에 본받을 부분도 많다고. “최승민 전문은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남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곤 하죠.” 이처럼 두 사람은 만나면 ‘다음엔 어느 산을 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행복한 취미 이야기와 함께 가족의 안부까지 챙기는 끈끈한 사이가 됐다.

눈에 선한 히말라야를 함께 꿈꾸며

산을 오르는 행위는 정복의 차원이 아니라, 산이라는 광활한 조물주의 작품을 통해 ‘나’라는 작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매력이 있다. 이제 두 사람은 히말라야에서 그 꿈을 실현해 보고자 한다. 최승민 전문이 전종필 차장에게 선물한 『일생에 한번은 히말라야를 걸어라』라는 책은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 “이 책은 평범했던 교사가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새롭게 인생을 보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만 함께 꿈꾸던 히말라야에 대한 이야기를 전 차장님께 들려주고 싶어 선물하게 됐습니다.” 최승민 전문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히말라야에 대한 꿈을 구체화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 산을 오르는 행복한 이야기가 곧 히말라야에서 펼쳐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날까지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산동무가 되길 기원해 본다.

* KAI 북클럽은 우리회사 임직원이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동료직원에게 선물하는 칼럼입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KAI News Briefing

2018 MAY



CEO 동정

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 참가

우리회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수직이착륙무인기, 즉각 타격형무인기 및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등을 전시하였다. 육군 본부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드론봇 전투체계의 비전과 운용개념, 전력발전 소개를 통해 민관군 및 산학연 유관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국방위원회 일행 및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하여 미래 무인전투체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회사에서는 김조원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이 참석해 소요군과의 현안 협의를 가졌으며, 금번 행사를 통해 향후 육군의 드론봇 전투체계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태국 공군 T-50TH 전력화 행사 기념식 참석

지난 4월 4일 우리회사가 납품하여 태국 공군이 운영 중인 T-50TH 4기가 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위한 실전 배치를 마치고 ‘T-50TH 전력화 기념식’을 현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회사 김조원 사장을 비롯해 주 태국 대사, 태국 공군사령관 등 50여 명의 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 타클리 기지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김조원 사장은 축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T-50TH 전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태국공군에 감사하다”며 “향후 태국 공군의 항공전력 현대화를 위한 후속사업 협력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리온 체계결빙 후속조치 비행시험 현지 방문

우리회사는 KUH의 결빙조건 운용능력 입증을 위한 방·제빙계통 설계 개선을 수행한 후, 2017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미국 미시건주 마르케트(Marquette)에서 체계결빙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다. 지난 2월, 우리회사 김조원 사장은 눈이 오는 와중에도 비행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현지에 장장 8시간 이상을 차로 이동해 방문하고 임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시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이번 체계결빙 비행시험에는 개발·운용·관리본부에서 28명이 참여하였고, 미 육군(RTC, Redstone Test Center)의 인공결빙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시험 결과, 개선된 방·제빙계통의 성능이 요구도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체계결빙 감항성 심사 및 인증심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EWS PANORAMA

01

산림청·제주소방청헬기 기술교범 감항기관 승인 획득

3월 30일 우리회사는 산림청 및 제주소방청 헬기 기술교범에 대해 감항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번 승인 획득은 회전익LS개발팀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이 참여해 2016년 1월부터 업무에 착수, 15개월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일궈낸 성과이다. 이번 승인은 비행교범 및 정비교범에 수록된 각종 항공기 운용, 정비절차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제반 규정을 충족한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항공기 운용 및 정비를 기술교범에 수록된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비행과 항공기 가동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2

미래 신사업 창출 위한 사내 R&D과제 2차 평가

4월 17일 개발본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사내 R&D과제 2차 평가가 진행되었다. 사내 R&D과제는 미래 신사업 및 신상품·신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기회 창출 및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당사가 매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3월초 사내 공모를 통해 총 28개 과제가 접수됐다. 이중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5개 과제를 선별했고 2차 평가에서는 개발 계획, 개발 비용 및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개발·사업·관리 부문의 실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총 7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2018년 한 해 동안 선행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03

KF-X 체계개발사업 파견 2주년 기념 행사

4월 21일 KF-X 체계개발사업의 기술지원을 수행 중인 록히드 마틴사 엔지니어들은 'KF-X체계개발사업 파견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록히드 마틴사 KF-X 기술지원팀을 이끌고 있는 Program Director Brad Leland 이사 및 엔지니어들은 우리회사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KF-16, T-50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바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도 체계개발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KF-X 기술지원팀은 2016년 4월, 5명을 시작으로 현재 총 47명이 당사에 파견되어 최신 전투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지원 중이며 KF-X사업부와 함께 호흡하고 발맞춰 가면서 전 분야에 걸쳐 KF-X 체계개발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04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소방·관용헬기, LCH 등 전시

4월 25일부터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5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우리회사의 수리온 기반 소방헬기 및 여러 관용헬기와 LCH 모형을 전시하였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광역시와 소방청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해 각종 소방장비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행사로, 이날 우리회사 부스에는 많은 소방 관계자 및 일반 관람객들이 방문해 국산헬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우리회사는 제주소방헬기를 올 5월에 납품할 예정이며, 국산헬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AI 사회공헌활동

01

지리산고등학교 방문해 사랑의 물품 후원

4월 19일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지리산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사랑의 물품 기증식을 실시하였다. 약 6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지리산고등학교는 학습의욕과 학습능력이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비와 기숙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면제하고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는 사립학교이다. 이번에 후원한 물품은 학습용 PC, 학습교구재, 음악용품 등 총 64점의 다양한 물품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위해 학업에 더욱 열중하고 공부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02

봄철 맞아 어르신들 위한 사랑의 봉사활동

4월 21일 나눔봉사단은 사천솔밭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힐링음악회'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어르신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풍물놀이, 난타공연, 기타연주 등 즐겁고 신명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지역 노인요양원 어르신 93명과 함께 봄철을 맞이하여 사천케이볼카를 탑승하는 나들이 행사를 수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허연무 지부장은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KAI의 후원에 항상 감사하고, 우리 지역에 나눔봉사단이 있어 너무 든든하다"라고 말했다.



03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천주민복지박람회 참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나눔봉사단은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사천주민복지박람회에 참여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FA-50 목재 만들기 체험을 비롯 기념사진 촬영, 항공기 모형 전시, 실버장기자랑대회 재능봉사, 간식 제공 등 주민복지와 자원봉사가 연계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와룡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총 54개 복지단체에 소속된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지역민과 관람객 약 20만 명에게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담은 목소리를 보내주세요.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퍼즐
의 정답을 모바일웹진(<http://kaiwebzine.com>) 독자세상 코너의 댓글이나 이메일
(wowdan@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증정합니다.
모바일 웹진 어플 설치방법은 우측페이지 이
벤트 내용을 참조하세요.



모바일 독자세상

● 조직의 리더는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되 냉혹한 현실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내 제안제도의 활성화 6단계를 통한 현실의 해법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우르는 전 세계의 대표 항공기업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태국에서의 'T-50TH' 전력화에 따른 수출 길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박범수 님(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를 주제로 하는 4월 사보 또한 여느 때와 같이 잘 읽었습니다. 항공 뉴스를 통해 얻게 되는 항공지식은 흥미롭고 나의 여행이야기를 통해 보는 세계는 각자 느낀 감정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웃음 짓게 합니다. 이번 사보를 통해 얻은 고객에 대응하는 행동 지침을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예라 연구원(회전익ILS개발팀)

● 카이캐스터 6기 Kick-off를 하었네요. 우리회사가 지금 워라밸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금번 카이캐스터가 사내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워라밸 정착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카이캐스터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현재 수석연구원(헬기구조설계팀)

● 서프라이즈 KAI 섹션의 트렌드 칼럼을 읽고 MRO 사업자 선정으로 우리가 사전 준비해야할 조건들과 성공적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제조사와의 유기적인 업무연계와 운용 시스템의 개발 및 산학협력, 그리고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매뉴얼에 따른 정비와 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크게 공감하였으며, 우리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감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굳은 다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성일 직장(생산지원직)

● 신입사원은 봄날의 풋풋함이 한층 더해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몇 해 전부터 부모님 초청 행사가 생겼더군요. 회사에 대해 더 많이, 자세히 알려드려서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심어줬다는데 대해 정말 좋은 행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심대근 책임(지원체계선행개발팀)

*지난 4월호 독자세상 소감에 실린 최상현 독자님의 연락처를 담당자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PUZZLE. KAI 독자 여러분 중 뇌섹남, 뇌섹녀를 찾습니다!

Q 아래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5+3=28	9+1=810
8+6=214	5+4=19
7+3=?	

4월호 정답 : 1208



본부별 사내 기자단

- 개발본부 개발지원팀 **이현정** 과장
055)851-2799
- KFX사업부 KFX사업관리팀 **김미영** 과장
055)851-1578
- 운영본부 운영지원팀 **장재완** 부장
055)851-9353
- 사업본부 사업기획팀 **이경태** 과장
055)851-9024
- 관리본부 경영기획팀 **백재환** 사원
055)851-9767



더욱 간편해진 모바일 앱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우리회사 사보 <Fly Together>가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Fly Together>는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kaiwebzine.com을 입력하거나

QR코드를 통해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아이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모바일 사보 어플리케이션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 1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이 사보'로 검색한다.
- 2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아이폰

- 1 앱 스토어에서 '카이 사보'로 검색한다.
- 2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모바일 사보 앱 등록 기념 이벤트

자신의 스마트폰에 사보 앱을 설치하고 각 칼럼 속 숨어있는 우리회사 KAI의 C를 찾아 캡처 후 모바일 사보 앱 이벤트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임직원 신청기간 2018년 5월 8일 ~ 18일

상품



T-50 모형(스탠드형)
(1명)



파리바게트 케이크 / 커피
기프티콘(3명)



투썸플레이스 커피
기프티콘(5명)